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辯析)

유미림 |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I. 머리말
- II. 『울릉도 사적』과 이본의 발굴
- III. 『울릉도 사적』과 『울릉도』
- IV. 맺음말

I. 머리말

1693년, 울릉도에서 어로하던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연행되어 일본으로 들어간 사건을 계기로 조선 조정에서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694년 가을, 숙종은 삼척영장 장한상에게 울릉도 및 주변 도서를 조사해오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조사 후 장한상은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이른바 장계(狀啟)를 비변사에 제출했으나 그 장계와 별단(別單)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외후손 신광박이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이라는 제목의 문서만 전해지고 있다. 이 『울릉도 사적』에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는 듯한 언급이 있어, 독도에 대해 논할 때 이 문서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은 이본이 장한상의 가장(家藏) 문헌으로 여럿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¹ 즉 『교동 수사공 만제록(喬桐水使公輓祭錄)』과 『절도공 양세 실록(節度公兩世實錄)』에도 『울릉도 사적』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본을 소개한 이원택 박사는 기존의 『울릉도 사적』이 포함되어 있는 『절도공 양세 비명(節度公兩世碑銘)』 등 세 문헌을 비교하여 『교동 수사공 만제록』이 나머지 2종보다 가장 먼저 필사되었으며, 『절도공 양세 비명』이 『절도공 양세 실록』을 재판집·필사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박세당의 『울릉도』가 남구만의 아들 남학명이 편찬한 『와유록(臥遊錄)』에도 실려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양자를 문헌학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그는 박세당의 글을 장한상의 글과 연관시켜 박세당이 ‘우산도’라고 한 섬을 독도로 해석한 필자의 논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이원택 박사의 논지는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보이는 우산도 관련

* 투고: 2019년 2월 7일, 심사 완료: 2019년 5월 11일, 게재 확정: 2019년 5월 17일

1 이원택, 2018,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호, 동북아역사재단.

내용이 『동국여지승람』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산도’를 울릉도에서 맑은 날 보이는 섬으로 해석한 필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² 이에 이 글은 이원택 박사의 문헌학적 검토 및 필자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울릉도 사적』과 이본의 발굴

1. 『울릉도 사적』의 발굴 경위

필자는 2007년에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과 박세당의 『울릉도』를 번역하여,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 역주 및 관련 기록의 비교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번역의 저본으로 삼은 장한상의 글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이고, 박세당의 글은 장서각 소장본이었다. 그런데 필자는 『울릉도 사적』을 번역할 당시 이 문서가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가 펴낸 『독도연구』(1985)에 따르면, 『울릉도 사적』은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서 입수한 『절도공 양세 비명』이라는 소책자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송병기도 1978년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울릉도에서 입수한 『울릉도 사적』이 삼척첨사 장한상이 조사한 기록으로서 외훈손 신광박이 정리한 것이라고 하였다.³ 필자는 이 문서가 1977년 11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 울릉도·독도학술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장한상 후손가에서 발굴되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울릉도·독도학술조사단이 파견된 해는 1977년 10월이다.⁴ 《경향신

2 이원택, 2018, 위의 글, 7쪽.

3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121쪽.

4 《동아일보》 1977년 10월 25일자 기사, 10월 19일부터 조사하여 23일 돌아온 것으

문》⁵은 “학술조사단은 울릉도교육청 이종렬 장학사가 최근에 찾아낸 강원도 삼척영장의 울릉도사적기에서 독도가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 독도 자료를 삼척 지방의 고문서에서도 찾아낼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냈다. 문제의 울릉도사적기는 삼척영장 장한상이 숙종 20년 관할 도서인 울릉도를 시찰한 기록으로 12대손 장재수 씨(울릉서중 교장)에 의해 공개된 귀중한 자료다”라고 좀 더 자세히 보도하였다.

필자는 울릉도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이종렬 선생⁶에게서 몇 년 전에 이 사료의 발굴 경위에 대하여 들은 바가 있다. 『도지(島誌)』⁷의 필사자이기도 한 그는 1970년대 중반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장재수 교감에게서 그의 집안에 울릉도 관련 사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학 때 원본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여 전달 받아 필사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울릉도 사적』인데, 이를 1977년 학술조사단이 왔을 때 제공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복사한 뒤에 되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술조사단의 일행이었던 이근택 선생의 기억에 따르면, 사료의 존재를 확인한 뒤에 그 다음해인 1978년에 자신이 직접 의성으로 가서 원본을 가져와 다시 복사한 뒤에 장한상 집안에 반환했다는 것이다. 『독도연구』에서 1978년에 발견했다고 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⁸에

로 되어 있다. 『독도연구』에는 최문형의 글도 실려 있는데 최문형은 사료의 발굴 연도를 1977년으로 보았다.

- 5 《경향신문》 1977년 10월 25일자 기사.
- 6 1932년생이다. 울릉도에서 장학사와 장학관, 교감, 교장, 교육장 등을 역임한 뒤 1997년 퇴직했다. 1989년 울릉군지 편찬에도 관계했다. 현재 대구에 거주 중이다.
- 7 원제는 『島誌』(1950)로 개척민 손순섭이 쓴 것인데, 이종렬이 1970년대 중반에 다시 필사하여 『島誌: 鬱陵島史』라고 제목을 붙였다. 필자는 손순섭의 원본을 저본으로 하고 이종렬의 필사본을 참고하여 번역했다(유미림 번역 및 해제, 2016, 『島誌: 울릉도史』, 울릉문화원).
- 8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두 가지로 검색 가능하다. 하나는 『節度公兩世碑銘』이고, 다른 하나는 『독도 자료: 동양편 2, 鬱島記, 鬱陵島紀事 外』(2011)이다. 둘 다 『울릉도 사적』이 실려 있다. 『節度公兩世碑銘』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고, 『독도 자료』는 책자인데 2008년경 제본된 듯하다. 두 문서의 입수 경위에 대한 기록은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소장되어 있고, 1977년에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어 약간의 오차가 있다.⁹ 여러 사람의 기억이 다르다 보니 발굴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종렬 선생이 의성 장한상 집안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를 후손 장재수를 통해 획득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 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한상의 사당인 경덕사를 관리하는 장자진 선생에 따르면,¹⁰ 자신이 경덕사를 관리하게 된 시기는 15년 전부터라고 한다. 의성조문국박물관의 최강국 학예연구사에 따르면,¹¹ 장한상 관련 고문서 215점은 경덕사에 소장되었다가 2010년 의성군청에 기탁되었고 다시 2012년 12월에 경상북도 도지정 유형 문화재 제443호로 지정(204점)되었다. 215점은 2013년에 개관한 의성조문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에 이원택 박사가 발표한 자료는 의성조문국박물관 소장의 이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원택 박사가 확인했다는 이본, 즉 『교동수사공 만제록』과 『절도공 양세 실록』은 필자도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부터 원본 이미지 파일을 제공받아 확인하였다.

없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자료는 의성조문국박물관에서 입수한 『節度公兩世碑銘』과 같은 판본의 사본으로 보인다.

- 9 이근택 선생은 자신은 원본을 복사했을 뿐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 시기는 모른다고 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서지사항에는 1977년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다. 2018년 11월경에 통화했다.
- 10 2018년 10월 30일 장자진 선생과 통화했다. 장자진 선생은 몇 년 전 문화원 경북지회장 김중우에게 문서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2008년 11월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수도제도에 대한 재조명”을 할 때 연합회 경북지회장 김중우가 “운암 장한상 공의 행장과 독도를 발표”한 적이 있으므로 장자진 선생이 몇 년 전이라고 한 것은 착오일 것이다. 장자진 선생에 따르면, 김중우가 이 대회를 준비하던 중 『절도공 양세 실록』에 『울릉도 사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11 2018년 10월 24일,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장한상과 울릉도·독도’, 최강국 발표 내용.

2.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 문제

필자는 『울릉도 사적』의 끝에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조선 시대에는 노년에 자신의 글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에게 옮겨 쓰게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울릉도 사적』도 장한상이 후손을 시켜 정리·필사하게 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임인년을 1722년으로 보았다.¹² 그런데 『울릉도 사적』이 포함되어 있는 『절도공 양세 비명』에는 장한상의 사제문과 비명이 함께 실려 있어 장한상 사후 필사된 것이 분명하므로 장한상 생전인 1722년에 비명을 필사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임인년은 1782, 1842, 1902년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¹³ 『울릉도 사적』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려 있어 사후에 필사된 것이 맞다면 임인년을 1722년으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 점은 필자의 오류다.

그럼에도 필자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장한상의 후손이 비명과 사제문을 모아 『절도공 양세 비명』과 같은 책자 형태로 엮었다면, 사후 50년이 훨씬 지난 1782년 혹은 그 이후에 비명과 관계없는 1694년의 보고서를 다시 필사·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그때 삽입된 『울릉도 사적』은 1694년경 필사했던 것을 삽입한 것인가, 아니면 1782년경 다시 필사·삽입한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은 이원택 박사가 『절도공 양세 비명』 외에 다른 두 문헌을 새로 소개했으므로 이들을 비교해 보면 풀릴 것이다.

필자본인 『교동 수사공 만제록』, 『절도공 양세 실록』, 『절도공 양세 비명』은 연도와 편찬자를 추정할 만한 단서, 이를테면 발문이나 서문이 없다. 이원택 박사는 『교동 수사공 만제록』, 『절도공 양세 실록』, 『절도공 양세 비명』 순서로 나왔을 것으로 보았다. 『절도공 양세 실록』의 「울릉도 사적」에 교정할 곳이 표시

12 유미림, 2007,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 역주 및 관련 기록의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 이원택, 2018, 앞의 글, 10쪽.

되어 있는데, 『절도공 양세 비명』이 그 교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절도공 양세 비명』이 『절도공 양세 실록』을 필사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경우 『절도공 양세 실록』과 『절도공 양세 비명』 간의 시간적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 『절도공 양세 실록』은 장한상 사후 얼마 안 되어 엮은 것이고, 『절도공 양세 비명』은 1782년 혹은 그 이후에 엮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절도공 양세 실록』의 교정 표시는 1782년 이후 『절도공 양세 비명』을 엮을 당시 누군가가 표시한 것임을 의미하는가?¹⁴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원택 박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교동 수사공 만제록』, 『절도공 양세 실록』, 『절도공 양세 비명』 세 문헌을 비교해보면, 『교동 수사공 만제록』에는 만사와 치제문, 묘갈명, 『울릉도 사적』이, 『절도공 양세 실록』에는 사제문과 만사, 비명, 『울릉도 사적』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는 비명과 사제문, 『울릉도 사적』이 실려 있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 만사는 실려 있지 않다. 세 문헌 모두 『울릉도 사적』을 싣고 있지만, ‘壬寅春 外後裔 永陽 申光璞 書’라는 열두 글자는 『절도공 양세 비명』에만 부기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열두 글자의 서체가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글들의 서체와 다르다는 점이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는 『양대 비명(兩大碑銘)』, 『사제문(賜祭文)』,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다른 글이 실려 있다. 『양대 비명』은 교동공(喬桐公, 후에 절도공) 장시규와 북병사공(北兵使公) 장한상의 비명을 가리킨다. 장시규에 대한 비명에는 ‘息山居士延城李萬敷 撰, 外曾孫昌寧後人成爾洞書’라고 쓰여 있는 반면, 장한상에 대한 비명에는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蔡獻徵撰, 崇禎後再周乙巳八月日立’이라고 쓰여 있다. 장한상 비명이 세워진 을사년은 그가 사망한 다음 해인 1725년을 말한다.

그런데 ‘壬寅春 外後裔 永陽 申光璞 書’라는 열두 글자가 『절도공 양세 비명』에만 부기되어 있다면, 이 안에 실린 세 가지 유형의 다른 글은 같은 시기에

14 『절도공 양세 실록』에 교정 표시를 하고 삽입할 글자를 써넣은 것의 서체는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의 서체와 유사하다.

필사되었음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의 다른 글이 같은 시기에 필사되었다면 임인년에 신광박이 필사했다는 것이므로 그중 하나인 『울릉도 사적』도 임인년 이후 필사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점이 입증된다면 1694년의 보고서인 『울릉도 사적』이 임인년에 다시 필사되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렸다는 사실이 성립될 것이다.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세 가지 유형의 글들을 동일인이 동일한 시기에 필사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글 가운데 『사제문』과 『울릉도 사적』은 서체가 같아 보이지만, 『양대 비명』은 서체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의 농도도 다르다. 서체가 같아 보이는 『사제문』과 『울릉도 사적』도 『울릉도 사적』의 맨 끝에 쓰여 있는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 열두 글자는 본문의 서체와 다르며 먹의 농도도 다르다.

그렇다면 이는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사제문』과 『울릉도 사적』의 본문 필사자와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의 필사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물론 필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문서의 필사 시기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필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박사는 “『절도공 양세 비명』의 끝에 필사자 신광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체로 보아 「울릉도 사적」만이 아니라 책 전체를 신광박이 필사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⁵고 하였다. 또한 그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울릉도 사적」 사진만 보고 『절도공 양세 비명』이라는 책 전체를 보지 못하였을 때는 「울릉도 사적」에 바짝 붙여 필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광박이 「울릉도 사적」만 쓴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필사 연도와 이름을 쓴 줄이 앞줄에 바짝 붙여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울릉도 사적」만을 필사했다는 표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¹⁶고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양대 비명』은 『사제

15 이원택, 2018, 앞의 글, 10쪽.

16 위와 같음.

문』이나 『울릉도 사적』의 서체와 다르다. 또한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은 한 면에 모두 8행의 문장이 들어가 있다.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자는 다른 행과 간격을 맞춰 한 행을 차지해도 될 만큼 행간의 여백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열두 자만 본문에 바짝 붙여 써서 앞면의 행간과 달라 의문을 자아낸다.

『절도공 양세 실록』은 ‘節度公兩世實錄終’이라는 여덟 글자를 맨 뒤에 써 주되 면을 바꿔 다음 면에서 새로 썼다. 이는 『절도공 양세 실록』 전체 내용이 끝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에 비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에는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만 『울릉도 사적』 끝에 바짝 붙어 있다. 이원택 박사는 이것이 『울릉도 사적』만을 필사했다는 표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절도공 양세 실록』의 체재와 비교하면 맞지 않는다. 따라서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가 『절도공 양세 비명』 전체를 필사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울릉도 사적』만을 필사했다는 의미인지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세 가지 유형의 글을 누가 필사했는가를 보기 위해 서체에 따라 편의상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 (1) 『양대 비명』의 필사자(A)
- (2) 절도공·북병사공 『사제문』의 필사자(B)
- (3) 『울릉도 사적』의 필사자(A)
- (4)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의 필사자(C)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문서는 서체가 다른 문서가 함께 들어가 있긴 하

17 서지학적 사항에 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사업본부장 최채기 박사에게, 서체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원이자 서예가인 최병준 선생에게 자문하였다.

지만 전체 종이의 질이나 바랜 상태로 보아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서체가 다른 문서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1. 『사계문』의 서체(B)가 『양대 비명』과 『울릉도 사적』의 서체(A) 및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의 서체(C)와 다르다는 것은 신광박이 세 문서의 필사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2. 『울릉도 사적』 필사자(A)가 있는데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를 쓴 필사자(C)가 따로 있다면, 이는 임인년이 반드시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3. 그렇다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세 문서는 신광박이 편집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먼저 필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울릉도 사적』도 임인년과 무관하게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신광박이 임인년에 『절도공 양세 비명』을 엮었다는 사실은 성립하지만 이런 사실로 인해 임인년이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임이 자동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원택 박사는 『절도공 양세 실록』에서 교정할 부분을 표시한 것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서 바로잡혔다고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절도공 양세 실록』에 실린 『울릉도 사적』에서는 ‘黑雲自北蔽天 電光閃爍’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에서는 ‘黑雲自北蔽天 而電光閃爍’으로 ‘而’자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절도공 양세 실록』의 『울릉도 사적』에서는 ‘排擠錯絕 卒非人所可通逕’으로 쓰고 ‘絕’자를 ‘卒’자 앞에 삽입하도록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이 『절도공 양세 비명』의 『울릉도 사적』에서는 ‘排擠錯絕 卒非人所可通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교정할 내용인 ‘而’와 ‘絕’자는 도리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의 서체와 유사하다.

『절도공 양세 실록』에 표시해 둔 글자가 『절도공 양세 비명』에서 고쳐져 있으므로 『절도공 양세 비명』이 『절도공 양세 실록』보다 뒤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절도공 양세 실록』에 실린 비명은 1725년 장한

상 사후 바로 만들어졌으므로 『절도공 양세 실록』(1725년 이후)과 『절도공 양세 비명』(1782년 이후)의 시간적 격차는 50년 이상이 벌어진다. 『절도공 양세 실록』을 펴낼 당시 교정 표시를 해두었다가 50여 년이 지난 1782년 이후에야 바로잡은 것일까? 이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없다. 『절도공 양세 실록』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제문과 만사, 비명이 실려 있어 제목과도 맞지 않는다. 『절도공 양세 비명』은 그 안에 수록한 내용에 비춰보면 오히려 이 제목이 더 부합된다. 그럼에도 두 서책 모두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울릉도 사적』을 신고 있다.

신광박이 『절도공 양세 비명』을 편집했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이며 언제 편집했을까? 신광박의 생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사료가 있다. **조선 후기 무반의 한 사람인 노상추(1746~1829)가 남긴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에 ‘신광박(申光璞)’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정조 2년(1778) 5월 7일자 일기에 “尙州道湖申光璞, 來訪告歸”가 보이고, 순조 15년(1815) 1월 28일자 일기에 “晚蛇浦申光璞來訪, 卽辛巳生云”¹⁸이 보인다. 경상도 선산이 고향인 노상추는 청년기와 노년기를 고향에서 보냈지만, 관직 생활을 하는 30여 년은 한양·삭주·홍주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일기에 방문객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신광박의 이름이 있으므로 신광박이 동향인 노상추의 임지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 따르면, 신광박이 상주 도호를 지냈으며 신사년, 즉 1761년생이고 사포(蛇浦),¹⁹ 즉 의성 사람임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노상추를 방문한 신광박은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의 신광박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광박이 말한 임인년 봄은 1782년이고, 그의 나이 22세에 『절도공 양세 비명』의 편집에 관계했다는 사실이 성립한다.

『절도공 양세 비명』이 『절도공 양세 실록』을 필사한 것이라면 『절도공 양세 비명』이 나왔을 시기(1725)와 신광박이 『절도공 양세 비명』을 편집한 시기

18 『盧尙樞日記』(『한국사료총서』 제49집).

19 의성군 구전면 용사리를 말한다. 1914년에 龍蛇라는 지명으로 통합되었다. 현재 용사리에 下蛇, 下蛇浦가, 용사2리에 상사, 상사포, 간제, 상제가, 용사3리에 龍申이 속해 있다.

(1782)의 간격이 너무 크다. 그런데 두 문헌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세 문서는 신광박 이전, 즉 1782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는 그 이전에 필사되어 있던 세 문서를 1782년에 『절도공 양세 비명』으로 엮으면서 기입한 것이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는 열두 글자를 신광박이 임인년에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사실을 밝혀 놓기 위해 기입했을 수 있다. 조상의 행적에 관한 문헌은 통상 사후 얼마 안 돼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절도공 양세 실록』이 있는데 50년이 지나 『절도공 양세 비명』을 다시 엮었다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이다. 장한상 후손이 『승평문헌록(昇平文獻錄)』의 발문에서 “聖上踐阼後三十七年流火月后孫奎燮敬誌”, 즉 고종 37년(1900)에 만들어졌음을 밝힌 점²⁰에 비춰보면, 『절도공 양세 비명』에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라고 부기한 것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렇듯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논의는 억단이고 추론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울릉도 사적』이 1782년에 신광박이 필사한 것인지, 그 전에 필사되어 있던 비명과 사제문에다 『울릉도 사적』을 1782년에 끼워 넣은 것인지, 아니면 신광박이 1782년에 필사했음을 제3자가 다시 밝힌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이본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울릉도 사적』이 1694년의 보고서에서 유래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대가 언제인지, 신광박이 세 문서의 필사 당사자인지, 아니면 신광박이 편집자임을 밝힌 것인지를 따지는 일은 크게 의미가 없다. 더구나 『교동 수사공 만제록』과 『절도공 양세 실록』에도 『울릉도 사적』이 실려 있지만, 두 문헌에는 ‘壬寅春外後裔永陽申光璞書’

20 이월택 박사는 초간본에 “聖上踐阼後三十七年壬戌流火月后孫奎燮敬誌”라고 쓰여 있던 것이 복간본의 동일한 발문에서는 간지 ‘임술’만 삭제했다고 했는데(앞의 글, 14쪽), 성상 37년은 임술년이 아니라 경자년이다. 복간본에서 ‘임술’을 삭제한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리는 열두 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신광박의 필사 여부는 더더욱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신광박본 외에 다른 이본이 두 가지 더 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으나 이들 문서에서 신광박을 운운하지 않았으므로, 장한상의 1694년 보고서에 의거하여 작성한 『울릉도 사적』이 장한상 가문에 여러 형태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교동 수사공 만제록』과 『절도공 양세 실록』, 『절도공 양세 비명』 중 어느 것도 『울릉도 사적』을 포괄하는 표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세 문헌은 장한상이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대로 신지 않았고, 군관의 사전 답사도 신지 않았다. 이에 비해 박세당의 『울릉도』는 장한상이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는 물론 군관의 사전 답사까지 신고 있다. 다음은 박세당의 『울릉도』와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Ⅲ. 『울릉도 사적』과 『울릉도』

1.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울릉도』 내용의 비교

『와유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²¹과 규장각 소장본²² 두 종류가 있는데 박세당의 글 『울릉도』는 장서각 소장본에 실려 있다. 이원택 박사는 한국

21 『와유록』은 17세기 중반 산수벽이 있던 사람이 편찬한 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낸 해제에 따르면, 12책의 필사본으로 된 유일본으로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산수 유람에 대한 시문을 모은 것으로 되어 있다. 권마다 앞에 글의 저자를 실은 것도 있으나 빠뜨린 것도 있다(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55쪽).

22 규장각 해제에 따르면, 7책의 필사본인 와유록(古 4790-48)은 18세기 후반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松都, 關東, 關北 지방을 여행한 李穀, 金時習, 李珥, 李廷龜, 金昌翁 등 44명이 쓴 73편의 기행문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와유록』의 편자가 남학명(1654~1722)으로 최근 밝혀졌음을 기술하였다. 남학명은 남구만의 아들이고, 남구만(1629~1711)과 박세당(1629~1703)은 처남과 매부 사이이므로, 박세당은 남학명의 고모부가 된다. 이 때문인지 남학명은 『와유록』 서문(「와유록서」)²³을 박세당에게서 받았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의 아들 박태보의 여행기가 『와유록』에 실려 있고, 그 내용이 박세당의 『울릉도』에 일부 실려 있는 사실에 의거하여 박세당이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를 필사했을 것으로 보았다.²⁴ 그리고 후에 장한상의 수도 기록 입수 후 이미 필사해 놓은 『울릉도』에 붙여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는 이 부분을 서지학적으로 검증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박세당의 『울릉도』를 보면,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는 있으나 서체는 박세당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인다. 글자 사이의 여백이나 먹의 농도로 볼 때 그러하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이 『와유록』의 『울릉도』를 필사한 뒤 장한상의 수도 기록을 입수하게 되자 이미 필사해 놓은 『울릉도』에 붙여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²⁵ 그랬다면 먹의 농도가 달라야 하고 다른 면에 쓰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울릉도』는 먹의 농도와 종이의 질이 균질하고 내용도 한 면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 이원택 박사는 『와유록』 서문이 쓰인 시기를 1692~1694년 사이로 보았는데, 그랬다면 『와유록』에 장한상의 보고서(1694년 10월)가 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이원택 박사도 인정한 바이다. 따라서 이런 추정은 성립되기 어렵다. 게다가 박세당의 『울릉도』에는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는 없는 군관 최세철의 조사가 더 실려 있다. 군관의 보고는 장한상의 보고에 앞서 조정에 보고되었다. 장한상은 군관의 보고 내용을 9월 2일자로 비변사에 제출했고, 자신의 조사 내용은 10월 9일 군관에게 도형(圖形)과 함께 비변사에 제출하게 하였다.²⁶

23 『서계집』 8권.

24 이원택, 2018, 앞의 글, 20쪽.

25 위와 같음.

26 『비변사등록』 숙종 20(1694) 10월 15일.

그러므로 두 문서는 작성 시기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문서다.

무엇보다 박세당의 미간행 문집²⁷과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는 구성이 다르다.²⁸ 그렇다면 『울릉도』의 필자는 누구일까? 남학명은 출전을 ‘지지(地誌)’라고 표기했고, 박세당은 출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삼국사기』와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한 부분까지로 신라 사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조선조 성종 2년 삼봉도 조사까지를 기술하였다. 남학명도 지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승려의 이야기까지 신고 있으므로 출전을 ‘지지’라고 밝힌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는다. 그런데 남학명은 장한상의 수도 사실을 신지 않았다. 박세당과 남학명 모두 지지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글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밑줄 친

<표 1> 지지 인용문에서 박세당과 남학명의 차이

지지	박세당(『울릉도』)	남학명(『울릉도』)
于山國歸服 歲以土宜爲貢 于山國在溟州正東海島 或名鬱陵島 地方一百里(삼국사기)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 地名百里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嶮撐空 南峯稍卑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鬱陵 或曰武陵 亦曰羽陵 登高望之 三峯岌嶮撐空 而南峯稍低 日初出時 風恬浪靜 則衆峯攢青 岩壑呈露 沙汀樹木 歷歷可指	鬱陵 或曰武陵 亦曰羽陵 登高望之 三峯岌嶮撐空 而南峯稍低 日初出時 風恬浪靜 則衆峯攢青 岩壑呈露 沙汀樹木 歷歷可指
一說于山鬱陵本一島 地方百里…)	없음	없음
新羅時 特險不服 智證王 12年…	新羅智證王 聞于山國負險不服…	新羅智證王 聞于山國負險不服…

27 『울릉도』가 실린 박세당의 문집은 『한국문집총간』으로 간행되기 이전의 필사본이다. 이를 『서계잡록』이라고 이름한 곳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다. 그러므로 『서계잡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붙인 편의상의 제목일 뿐이며 문집의 제목이 아니다.

28 이 글에서는 박세당의 『울릉도』와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를 편의상 박세당의 『울릉도』와 남학명의 『울릉도』로 분류하여 기술했음을 밝힌다.

부분이 특히 다른 내용이다.

표에서 보듯이 박세당은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 地名百里”라고 기술한 반면, 남학명은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이라고 기술하였다. 박세당은 ‘지방백리’를 ‘地名百里’로 오기했고, 남학명은 “울릉도가 사방 백리”라는 사실 자체를 인용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지지 인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둘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두 섬이 현의 동쪽에 있는데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고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으며,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박세당과 남학명에 오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해가 처음 떠오를 무렵 풍랑 없이 고요하면, 봉우리들이 질푸르고 바윗골이 드러나 모래톱의 수목을 역력히 볼 수 있다”라고 바뀌어 있다. 그 차이는 <표 2>와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에 있음을 전제한 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있다고 부연했는데 세 봉우리가 보이는 섬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뒤의 설명으로 보건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울릉도』는

<표 2>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용에서 박세당과 남학명의 차이

신증동국여지승람	박세당, 남학명
二島在縣正東海中	없음
없음	登高望之
三峯巖巖撐空 南峯稍卑	三峯巖巖撐空 而南峯稍低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日初出時 風恬浪靜 則衆峯攢青 岩壑呈露 沙汀樹木 歷歷可指
風便則二日可到	없음
一說于山鬱陵本一島	없음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에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면”이라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그리고 이어 “세 봉우리가 솟아 있”다고 기술하였다. 제목이 ‘울릉도’이므로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본”다고 한 것은 육지에서 바라본 울릉도를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육지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울릉도의 수목이 또렷이 보인다고 말한 것이다.

〈표 2〉에서 보았듯이 『울릉도』에는 “해가 처음 떠오를 무렵 풍랑 없이 고요하면 봉우리들이 질푸르고 바윗골이 드러나 모래톱의 수목을 역력히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육지에서 울릉도의 봉우리를 볼 수 있음을 기술한 것이다. 우산도가 수목을 또렷이 볼 수 있는 섬이 아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일러 울릉도에서 우산도를 바라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순풍이면 이틀에 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육지, 즉 울진현에서 이틀 만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박세당과 남학명은 이 문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박세당·남학명이 기술한 『울릉도』의 가장 큰 차이는 “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는 문장이다. 박세당·남학명의 『울릉도』에는 이런 내용이 아예 없다. 당시는 조정 대신이나 무신, 역관,²⁹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거론하던 시대였다.³⁰ 그런데 『울릉도』의 저자들은 왜 이 내용만 삭제했을까? 그것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일도(一島)일지도 모른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당시의 인식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울릉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우산도와 울릉도가 한 섬일 수도 있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부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박세당 이전의 관찬 지리지인 『신증

29 역관이 왜관 관수에게 “울릉도는 원래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어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직접 말한 바도 있다(『竹嶋紀事』 1698년 4월 10일).

30 『동국여지승람』은 ‘울릉도 쟁계’ 동안 양국이 서계를 왕복할 때마다 언급되었고, 쓰시마번은 이 문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막부에 보고하기도 했다. 장한상도 출장 후 군관을 시켜 먼저 비변사에 『동국여지승람』을 제출하게 했다.

『동국여지승람』은 본문에서 우산도와 울릉도라는 두 섬을 명기하여 동해에 있는 섬이 2도(二島)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분주에서는 “두 섬이 한 섬일지 모른다”는 1도설(一島說)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우산울릉 일도’설이 누락된 것이다. 의도된 누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박세당의 인식인가, 남학명의 인식인가?

2. 장한상 『울릉도 사적』과 박세당 『울릉도』, 남학명 『울릉도』의 관계

장한상과 박세당, 남학명 글의 차이를 알려면 구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대략 <표 3>과 같다.

박세당과 남학명이 지지와 승려에게서 들은 전문(①)을 신고 있는 점은 같다. 하지만 박세당은 군관의 사전 조사와 장한상의 보고를 기술한 반면, 남학명은 이 내용을 신지 않았다.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도 군관의 사전 조사 내용은 실려 있지 않다.³¹ 이에 비해 박세당은 군관의 사전 조사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흔적, 10월 4일 귀항하기까지의 여정, 6일 삼척 대풍처로 돌아온 뒤의 소회, 군관을 시켜 지도와 『여지승람』을 제출한 사실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술하였다.

장한상의 보고는 세 번에 걸쳐 이뤄졌다. 첫 번째는 군관의 사전 조사, 두 번째는 9월 19일 삼척에서 울릉도로 떠나기 직전의 보고, 세 번째는 9월 19일부터 10월 6일 돌아온 뒤의 일정에 관한 보고다. 돌아온 뒤에 역관 안신휘와 군관을 보내 우선 복명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 사적』은 세 번째 보고 내용 가운데 중봉에 올라 살펴본 정황까지만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세당의 『울릉도』는 첫 번째 보고와 세 번째 보고 내용을 신고 있으며 삼척으로 돌아온 뒤의

31 박세당의 『울릉도』는 ‘江原道三陟鎭營將 爲馳報事’라는 제목으로 군관 최세철의 조사 내용을 수록했고, 장한상의 수토 관련 보고도 함께 수록했다. 장한상의 후손이 장한상의 행적만 신기 위해 『울릉도 사적』에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표 3〉 장한상과 남학명, 박세당 글의 구성 비교

번호	『울릉도 사적』(장한상)	『울릉도』(남학명)	『울릉도』(박세당)
①	없음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	新羅史曰 于山國 島名鬱陵地名百里…
②	없음	嘗遇一僧 自稱壬辰之亂俘入日本 丙午隨倭船 至鬱陵島 島有大山 三峰尤峻 發島三面皆壁立萬仞 南邊稍開豁然…	嘗遇一僧 自稱壬辰之亂俘入日本 丙午隨倭船 至鬱陵島 島有大山 三峰尤峻 發島三面皆壁立萬仞 南邊稍開豁然…
③	없음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清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 麋鹿熊羆 往往越海出來 朝日纔高三丈 則島中黃雀群飛來投竹邊串 一島中竹實 時時漂出 形如大博棊 海女拾之 爲雜佩 箕箒及竹 亦或漂出一節有數尺者 宜箭筒比多有之一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清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 麋鹿熊羆 往往越海出來 朝日纔高三丈 則島中黃雀群飛來投竹邊串 一島中竹實 時時漂出 形如大博棊 海女拾之 爲雜佩 箕箒及竹 亦或漂出一節有數尺者 宜箭筒比多有之一
④	없음	없음	江原道三陟鎮營將 爲馳報事
⑤	없음	없음	嶺東嶺南既□□海船隻乙仍于 不得已新造爲乎矣… 軍官崔世哲 回還言內…
⑥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漢相馳報內	없음	江原道三陟鎮右營將 爲馳報事
⑦	蔚陵島被討事 去九月十九日巳時量…	없음	鬱陵島搜討事 去九月十九日巳時量…

정황까지 신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현전하는 『울릉도 사적』이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를 필사한 것이 아닌 반면, 박세당의 『울릉도』는 최종 보고서를 필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게다가 『절도공 양세 실록』과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린

32 이원택 박사는 이 주제를 다룬 학술 발표 자료집에서 장한상의 보고서가 초안과(최

『울릉도 사적』에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 내용이 더러 있다. 하지만 박세당의 『울릉도』는 두 문헌에 비해 오기나 오류가 적어 이를 통해 두 문헌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 점도 박세당이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를 옮겨 적었음을 의미한다.³³

그런데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에는 박세당이 기술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어 박세당이 『울릉도 사적』을 옮기면서 누락시킨 것이 아닐까 오해할 여지가 있다. 이는 박세당이 기술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박세당은 장한상의 보고 가운데 울릉도에 보루를 설치할 방도가 없으며 섬에 가까이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굴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기술한 내용을 신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한상은 왜 이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했을까? 그 이유는 이들 내용이 수토 보고와 큰 관련성이 없으며 사실 관계에서 의심받을 만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박세당의 『울릉도』가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를 필사한 것임은 장한상의 글을 비교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표 4>는 장한상 글과 박세당 글의 형식을 비교한 것인데, 『교동 수사공 만제록』은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某馳報內…”라고 한 반면, 『절도공 양세 실록』과 『절도공 양세 비명』은 “甲戌九月日 江原道三陟營將張漢相馳報內…”라고 하였다. 반면 박세당은 “江原道三陟鎮右營將爲馳報事…”라고 하였다. “馳報內…”라고 한 것은 비변사에 제출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변사에 제출된 보고서에 근거하여 인용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爲馳報事”라고 한 박세당의 글이 최종 보고서를 직접 인용한 것에 가깝다. ‘수토’에 관한 표현을 보더라도 『교동 수사공 만제록』은 ‘搜事’로, 『절도공 양세 실록』과 『절도공 양세 비명』은 ‘被討事’로, 박세당은

중) 보고서 두 종류가 존재하여 초안이 장한상 집안에서 『울릉도 사적』으로 전승되고 최종 보고서 등사본은 박세당 집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했다가 이를 수정하여 발표한 논문에서는 삭제했다.

33 이에 대해서는 유미림, 2013, 앞의 책 참조.

〈표 4〉 장한상과 박세당의 기록 형식 비교

	울릉도 사적(『고동 수사공 만제록』)	울릉도 사적(『절도 공 양세 실록』)	울릉도 사적(『절도 공 양세 비명』)	울릉도(박세당)
보고서의 첫 줄	甲戌九月日 江原 道三陟營將張某馳 報內	甲戌九月日 江原 道三陟營將張漢相 馳報內	甲戌九月日 江原 道三陟營將張漢相 馳報內	江原道三陟鎭右營 將 爲馳報事
내용의 첫 부분	蔚陵島搜事 去九 月十九日十九日巳 時量…	蔚陵島被討事 去 九月十九日巳時 量…	蔚陵島被討事 去 九月十九日巳時 量…	鬱陵島搜討事 去 九月十九日巳時 量…
내용의 끝 부분	緣由馳報事	緣由馳報狀	緣由馳報狀	緣由并以馳報事
			壬寅春外後裔永陽 申光璞書	

‘搜討事’로 표기하였다. ‘搜討’라고 올바르게 표기한 이도 박세당뿐인 것이다. 이 역시 박세당이 최종 보고서를 인용했음을 의미한다.³⁴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박세당의 『울릉도』에는 실려 있지만, 남학명의 『와유록』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이는 박세당이 남학명의 『와유록』보다는 『와유록』이 박세당의 『울릉도』를 인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방증의 하나로 남학명의 일생과 학문 방식을 들 수 있다. 남학명은 주로 부친을 따라다니며 산수 유람을 하는 데 뜻을 두었던 자다. 그의 저작은 『명산기영(名山記詠)』, 『와유록』과 같이 기행문을 엮은 것에 지나지 않고, 사후에 나온 『회은집(晦隱集)』도 심오한 학문 세계와 철학을 엿볼 만한 글은 아니다. 그러나 남학명도 부친 남구만에게서 울릉도 쟁계와 관련된 정보를 들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울릉도』를 『와유록』 안에 편철해 넣은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남학명이 박세당에게서 『와유록』 서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울릉도·우산도

34 이 문제 또한 의문이 남는다. 박세당의 글도 『울릉도 사적』이라는 표제로 되어 있다. 이를 장한상 집안에서 붙인 제목이라면 박세당의 글에 최종 장계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장한상의 집안에는 왜 최종 장계를 실은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논리를 세웠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와유록』은 『울릉도』의 출전을 ‘지지’라고 밝혔지만 지지에 관한 내용 외에도 다른 내용이 더 들어 있다. 그럼에도 남학명은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원택 박사는 『와유록』 편자가 박세당의 『울릉도』에서 내용의 일부를 가져왔다면 편자를 박세당으로 명기했을 것이며 장한상의 수도 기록도 함께 수록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박세당이 『와유록』의 『울릉도』를 일부 필사했을 것으로 보았다.³⁵ 그러나 『와유록』 서문이 1692~169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장한상의 1694년 10월 수도 기록을 『와유록』에 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임은 이원택 박사가 자인한 바다. 따라서 필자는 남학명이 박세당의 『울릉도』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앞부분만 보고 ‘지지’라고 출전을 밝힌 것이거나, 뒤에 실린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 이하의 내용까지를 지지의 내용으로 보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와유록』에는 찬자(撰者)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글들이 많다. 따라서 이원택 박사가 언급한 남학명이 편자를 박세당으로 명기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모든 경우에 들어맞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와유록』은 『울릉도』에 이어 「유천축산록(遊天竺山錄)」³⁶이라는 글을 실었는데, 제목 아래에 ‘蔚珍’이라고 쓰여 있을 뿐 출전이나 찬자는 쓰여 있지 않다. 그런데 이 글 뒤에는 「불귀사(佛歸寺)」라는 다른 글이 실려 있다. 제목 아래에 ‘天竺山’이라고 쓰여 있으며, 찬자가 임유후(任有後)임이 따로 밝혀져 있다. 임유후는 광해군 때 동생 임자후의 역모에 연좌되어 한때 울진으로 가서 종적을 감추었던 자다.³⁷ 그러므로 「유천축산록」도 임유후의 글로 보인다. 그런데도 남학명은 찬자를 밝히는 대신 ‘울진’이라고만 밝혔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세당은 『울릉도』에 지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군관의

35 이원택, 2018, 앞의 글, 19~20쪽.

36 『와유록』 권8.

37 『연려실기술』 제24권 「인조조 고사본말」.

사전 조사 및 장한상의 조사 내용도 실었다. 남학명 역시 지지와 군관 및 장한상의 조사 내용을 실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박세당의 글에 실려 있다면, 박세당은 남학명의 『와유록』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이므로 박세당이 남학명 『와유록』의 일부를 필사했을 것이라는 이원택 박사의 설은 성립하기 힘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박세당의 『울릉도』에 보인 ‘울릉도·우산도’ 인식은 남학명의 인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지 및 수도 기록에 의거한 것이며, 따라서 박세당의 논리(〈표 3〉의 ③)는 자설(自說)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세당이 『울릉도』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침삭한 것은 자설의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표 5〉에서 보듯이, 세종 20년 남호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울릉도에 가서 도망간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³⁸ 원문은 “世宗大王二十年 遣縣人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 而還 其地遂空”이다. 박세당은 이 내용을 “世宗大王二十年 遣縣人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出來”라고 기술하였다. 즉 그는 남호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까지만 인용하고 ‘其地遂空’, 즉 수도 결과 울릉도가 공도(空島)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보더라도 박세당이 기술한 “蓋二島去此不甚遠…” 이하의 내용은 자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다음에서 이를 다루고자 한다.

〈표 5〉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울릉도』의 차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울릉도』(박세당)	『울릉도』(남학명)
世宗二十年 遣縣人萬戶 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以還 其地遂空	世宗大王二十年 遣縣人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出來	世宗大王二十年 遣縣人南顥 率數百人 往搜逋民 盡俘金丸等七十餘人出來

38 “세종 20년 올진현 사람 만호(萬戶) 남호(南顥)를 보내어 수백 명을 데리고 가서 도망해 가 있는 백성들을 수색하여 김환(金丸) 등 70여 명을 잡아가지고 돌아오게 하니, 그곳 땅이 그만 비었다.”

3. 박세당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 인식 차이

이원택 박사가 필자의 글을 비판한 것 가운데 하나는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와 박세당의 『울릉도』 및 장한상의 『울릉도 사적』을 비교해볼 때, 박세당의 ‘우산도’ 관련 기술이 『동국여지승람』의 인식과 같으므로 필자의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다.

문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盖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 于山島勢卑 不因海氣極清朗 不登最高頂 則不可見 鬱陵稍峻 風浪息 則尋常可見 麋鹿熊獐往往越海出來 朝日纔高三丈 則島中黃雀 群飛來投竹邊串³⁹ (이하 생략)

필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두 섬(울릉도와 우산도)이 여기(영해 일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를 수 있는 정도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이 (우산도 보다) 조금 더 높아 풍랑이 잦아지면 (육지에서) 이따금 사슴과 노루들이 바다건너 오는 것을 예사로 볼 수 있다. 아침 해가 세 길 높이로 떠오를 즈음이면, 섬 안의 누런 참새들이 죽변곶(竹邊串)으로 무리지어 날아와 앉는다.⁴⁰

이원택 박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39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의 『울릉도』와 남학명의 『와유록』에 실린 『울릉도』가 글자에 출입이 있으므로 박세당이 『와유록』에서 인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세당이 “遂寢其議”라고 한 것을 남학명이 “遂寢”이라고 한 것을 제외하면, 글자의 출입이 거의 없다.

40 유미림, 2013, 앞의 책, 372쪽 참조. 다만 이번에 해석을 약간 바꿨다.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부터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는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들면, (영해, 즉 육지에서) 늘상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사슴, 곰, 노루 등이 간간히 바다를 건너(육지로) 나오고, 아침에 해가 겨우 세 길쯤 떠오르면 섬 안의 피꼬리들이 무리지어 날아와 죽변곶에 내려와 앉는다.

이원택 박사는 “이 부분이 『신증동국여지승람』 우산도·울릉도조의 첫머리 언급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산도와 울릉도가 육지(평해, 죽변 등)에서 멀지 않아 순풍을 타면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육지에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울릉도와 우산도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⁴¹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와유록』에는 이산해의 「울릉도설(蔚陵島說)」도 「울릉도」와 함께 실려 있는데, 이산해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장한상의 「울릉도사적」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문리(文理)를 무시한 번역의 결과라고 생각한다”⁴²고도 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박세당이 언급한 위의 내용은 『울릉도』에 실린 네 가지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 즉 승려의 전문(傳聞) 뒤에 나온다. 이 내용이 왜 지지를 인용한 내용과 근관 최세철의 조사 내용 사이에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승려 이야기를 기술한 뒤에 “蓋二島去此不甚遠”으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蓋’ 이하가 박세당의 견해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 문장을 해석하는 데 논란이 있는 이유는 저자가 관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 기술된 내용의 맥락으로 보건대, 두 섬이 육지(영해)에서

41 이원택, 2018, 앞의 글, 24쪽.

42 위와 같음.

그리 멀지 않다고 했으므로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것은 날씨와 고도라는 조건이 맞으면 두 섬이 육지에서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가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 (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박세당은 앞 문장에서 주어를 ‘두 섬이’라고 기술한 것과 달리, 뒤 문장에서는 주어를 ‘우산도는’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뒤 문장에서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인다고 한 섬은 우산도를 가리킨다. 다만 어디에서 우산도가 보이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박세당의 문장대로 해석한다면, 우산도는 날씨가 맑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조건만 충족되면 보이는 섬이다. 그렇다면 이때 ‘보인다’고 한 곳의 기준은 어디인가? 필자는 우산도가 보이는 지점을 울릉도라고 해석했고, 이원택 박사는 영해나 육지로 해석하였다. 이원택 박사의 해석대로라면, 맑은 날 육지나 영해의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이 기술한 “蓋二島去此不甚遠 一飄風可至”를 “대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은 여기서(영해, 즉 육지)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산도와 울릉도 두 섬을 한데 묶어 육지에서 보이는 섬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근거를 박세당의 글이 『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조 첫머리 언급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데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울릉도’조 첫머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를 만에 갈 수 있다.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땅이 사방 백 리라고 한다….)

위 문장은 이원택 박사가 해석한 것처럼 두 섬 모두 육지에서 멀지 않은 섬

으로 해석할 수 없다. 위 문장은 두 섬이 동쪽 바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두 섬 모두 육지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에 있다”고 한 내용 다음에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라고 한 것을 ‘두 섬’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이유도 없다. “세 봉우리가 곧게 솟아”라고 한 것은 두 섬의 ‘세 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세 봉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두 문장은 분리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울진현의 산천으로 ‘우산도’와 ‘울릉도’를 거론했지만, 본문에서는 ‘우산도’를 거론하고 공백을 둔 뒤에 ‘울릉도’를 거론했고, ‘울릉도’에만〔 〕형식의 분주가 붙어 있다. 분주는 ‘울릉도’에만 해당하는 내용인데,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한 내용이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울진현의 속도로서 두 섬(우산도와 울릉도)을 거론했지만, ‘우산도’에 대해서는 기술할 내용이 없으므로 도서명만 기입하고 공백을 두고 ‘울릉도’에만 분주를 붙인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분주에서 “일설에는 우산·울릉이 원래 한 섬으로 땅이 사방 백 리라고 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즉 ‘일설’을 분주에서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날씨가 맑으면 봉머리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역력히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틀 만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은 육지에서 보이는 울릉도의 모습과 거리를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박세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이 내용을 계술하면서도 “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는 내용만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 이는 그가 우산·울릉 1도설을 부정했음을 의미한다.

이원택 박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육지에서 두 섬까지의 거리가 이틀이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해석대로라면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모두 육지에서 보이는 섬이 된다.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연장선상에서 박세당의 글을 해석하여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바다 공기가 아주 맑지 않거나(육지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영해, 즉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이는가? 그가 말하는 우산도는 어느 섬을 말하는가? 죽도인가 독도인가? 우산도(독도)는 육지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울릉도는 육지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인다. 장한상도 울릉도 수토 후 삼척으로 돌아와 있는 동안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섬의 모습이 물위로 보일락말락 한다”⁴³고 하였다. 이원택 박사의 해석이 성립하려면, 장한상은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두 섬의 모습이 물위로 보일락말락 한다”(밑줄은 필자)고 기술했어야 한다.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이는 섬이었다면 육지(영해든 삼척이든)에서 우산도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박세당 이전부터 그런 내용을 기술한 문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세당 이전의 문헌에서 울진이나 영해의 누대에 올라 울릉도를 목격했다고 기술한 문헌은 있지만, 육지에서 우산도를 목격했다고 기술한 문헌은 거의 없다. 울릉도를 일러 육지에서 보이는 섬으로 기술한 경우도 대부분 ‘높은 곳’이나 누대에 올라서 울릉도를 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박세당이 말한 우산도가 육지의 높은 곳에서 보이는 섬이라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섬은 현재의 ‘죽도’ 외에는 없다. 그러나 죽도는 울릉도 가까이 있는 섬이므로 굳이 두 섬을 분리시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박세당이 살았던 시대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널리 보급되어 ‘울릉도·우산도’ 2도 인식이 퍼져 있었다. 부도인 「팔도총도」에 두 섬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일본인이 인지할 정도였다. 「팔도총도」에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있으므로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육지 쪽에 가까운 섬이라고 오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산도를 ‘죽도’로 인식할 수는 없다.

박세당은 우산도의 지세가 낮다고 했는데, 이원택 박사는 우산도가 육지에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이때의 우산도는 지세의 고저와 상관없이 보이는 섬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산도는 육지에서 보이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

43 원문에 결자가 있어 그 자신의 목격담인지 다른 사람의 목격담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승람』에 ‘역력히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육지에서 울릉도의 수목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세당이 ‘보인다’고 한 것은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문헌에서 ‘보인다’는 표현의 문맥은 같지 않다. 이원택 박사의 해석은 ‘보인다’라는 자구에 얽매어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원택 박사는 “울릉도는 조금 더 높아 풍량이 잦아들면 (영해, 즉 육지에서) 늘상 볼 수 있다.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사슴, 곰, 노루 등이 간간이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오고, 아침에 해가 겨우 세 길쯤 떠오르면 섬 안의 피꼬리들이 무리지어 날아와 죽변곶에 내려와 앉는다”라고 해석하여 ‘늘상 볼 수 있다(尋常可見)’에서 끊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대상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끊는 것은 문리에 맞지 않는다. 그는 바다를 건너오는 짐승들을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짐승들로 해석했는데, 앞 문장에서 ‘울릉도’가 주어로 되어 있는데, 뒤 문장에서는 ‘(울릉도의, 또는 두 섬의) 사슴, 곰, 노루 등이’라고 하여 주어를 애매하게 처리한 것도 맞지 않는 해석이다.

박세당이 군관 최세철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뒤에 장한상이 기술한 “동남쪽에…”라는 내용을 인용했음에 비취보건대, 박세당은 우산도를 울릉도와 별개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장한상은 군관을 시켜 울릉도 도형과 『동국여지승람』을 비변사에 먼저 제출했는데, 박세당은 “『지리지』와 『여지승람』에 ‘순풍이 불면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참으로 근거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여기서 말한 지리지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동국여지승람』 이전의 다른 지리지⁴⁴에서 울릉도를 일러 순풍이 불면 육지에서 이틀 만에 다다를 수 있는 섬으로 묘사한 사실을 박세당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울릉도가 울진에서 이틀 걸리는 거리에 있는 섬이라는 내용은 『동국여지승람』에 이어 『지봉유설』(1614)에서도 보인 바 있다.

44 『동국여지승람』 이전의 지리지로는 『신찬 팔도지리지』(인각이 안 돼 현전하지 않음)가 있었고 그 내용이 『세종실록』 지리지(1454)로 이어졌고 『경상도 속찬지리지』(1469), 『팔도지리지』(1478, 현전하지 않음)로 이어졌다.

박세당은 장한상이 보고한, “비 개고 구름 걷힌 날, 산에 들어가 중봉에 올라보니…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삼분의 일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때 장한상이 말한 동남쪽의 희미한 섬은 우산도를 가리키지만, 장한상은 이를 ‘우산도’라고 명기하지 않았다. 반면, 박세당은 ‘우산도’를 명기하였다. 따라서 박세당이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울릉도-역자)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술한 것은 장한상이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면 맑은 날에는 섬(울릉도-역자)의 모습이 물위로 보일락말락 한다”고 기술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안용복과 박세당, 그리고 남구만의 ‘우산도’ 인식

지금까지 고찰했듯이 박세당은 우산도가 울릉도와 다른 별개의 섬임을 밝히려 했으므로, 그가 우산도를 육지에서 보이는 섬으로 기술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날씨와 고도라는 두 조건이 충족되면 우산도가 육지에서도 보이는 섬이라고 박세당이 생각했다면, 굳이 우산도의 지세를 운운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우산도의 지세가 울릉도보다 낮아 날씨가 매우 맑거나 울릉도의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 한 울릉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산도의 지세를 운운한 것이다.

이런 기술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두 섬의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했던 것에서 한층 진전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박세당에 와서 이처럼 진전된 인식을 보이게 된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 그의 생존 시에 ‘울릉도 쟁계’가 전개되어 장한상의 조사 정보뿐만 아니라 남구만에 대해서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당시의 국가적 현안인 울릉도 쟁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 관련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박세당은 남구만의 자형이지만 나이는 동갑이다. 어려서부터 함께 수학했고, 말년에도 남

구만이 그를 방문할 정도로 교유가 깊었다. 남구만은 1690년 11월과 1698년 8월, 박세당을 방문한 바 있다.⁴⁵ 남구만은 숙종으로 하여금 울릉도 수토제를 실시하도록 간했으며,⁴⁶ 울릉도 쟁계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그는 영의정에서 물러난 후인 1696년 10월에도 영부사(領府事)로서 안용복의 처벌을 논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다. 이때 그는 1693년에는 안용복의 말과 행적을 믿지 않았지만, 1696년에 쓰시마번이 조선 측에 확인한 내용-호키주[伯耆州]에 소송을 제출한 사실-을 통해 안용복의 행적을 믿게 되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⁴⁷ 이후 남구만은 안용복을 사형에 처하는 일이 상책이 아니라 쓰시마번을 유쾌하게 해주는 일이 될 뿐임을 대신들에게 역설하였다. 그는 1697년 3월에도 영중추부사로서 조정의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렇다면 남구만은 울릉도 쟁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용복의 ‘우산도’ 언급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글은 안용복의 행적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그의 행적과 우산도 인식에 한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에서 어로하던 중 ‘우산도’의 존재를 인지했고, 일본에서 심문받을 때도 우산도를 거론하였다. 1694년 가을 동래로 내려온 접위관 유집일은 안용복을 심문한 바 있고,⁴⁸ 강원도 관찰사는 장한상의 수토 사실을 접위관 유집일에게 알린 바 있다.⁴⁹ 이런 사실은 역관을 통해 부산왜관의 관수에게도 전해졌으며, 같은 해 12월 영의정 남구만이 교체된 사실도 왜관에 전해졌다. 더구나 접위관 유집일은 귀경 후인 1694년 12월 23일에 남구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사실도 역관에 의해 일본 측 정관(正官)의 귀에 들어갔다.⁵⁰ 이렇듯

45 『서계집』(『한국문집총간』) 해제와 연보.

46 『숙종실록』 20년(1694) 8월 14일.

47 『숙종실록』 22년(1696) 10월 13일.

48 『숙종실록』 20년(1694) 8월 14일.

49 『竹嶋紀事』 1694년 10월 14일. 다만 이 문헌에는 장한상이 ‘김 병사’로 오기되어 있다.

50 『竹嶋紀事』.

안용복의 행적과 조선 측의 동향은 왜관 측에 빠짐없이 전해지고 있었다.

안용복의 우산도 인식은 울릉도에 머무는 동안 형성되었다. 1693년 6월 5일 쓰시마번의 가로(家老) 스키무라 우네메[杉村采女]는 왜관에 체재하고 있던 역관 나카야마 가헤에[中山加兵衛]에게 다케시마(울릉도)와 부룬세미가 다른 섬인지, 다케시마의 크기와 방향은 어떤지 등을 조선인에게 은밀히 물어보도록 명했다. 이에 나카야마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부룬세미는 우루친토(울릉도)보다 동북에 있어 희미하게 보이는 섬이라는 것이다. 같은 해에 쓰시마번은 안용복에게서 “이번에 가간 섬의 동북에 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 섬에 머물던 중 두 번 보았습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말하기를 우산도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대체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로 보였습니다”⁵¹라는 진술을 들었다. 1693년에 안용복에게 각인된 우산도는 울릉도 동북쪽에 희미하게 보이던 울릉도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섬이었다. 1696년 비변사에서 취조할 때에도 안용복은 자산도(우산도)를 여러 번 언급하였다.⁵²

또한 1696년 오키(隱岐)에서도 안용복은 1693년에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한 관백(關白)의 서계를 받은 적이 있다며 ‘자산도’를 언급하였다. 호키에서 안용복은 ‘울릉 자산 양도 감세장(鬱陵子山兩島監稅將)’을 가칭했다고 진술하였다. 일본 기록에는 ‘조울 양도 감세장 신 안동지 기(朝鬱兩島監稅將 臣 安同知 騎)’로 되어 있다. ‘조울(朝鬱)’은 ‘조선’과 ‘울릉도’를 줄여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깃발의 표식을 아오야(靑谷)의 관리가 옮겨 적은 것인데, 관리가 ‘자산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 안용복이 쓰시마번과 조선에서의 취조에서는 ‘우산도’, 호키에서는 ‘조·울’이라고 구분해서 언급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함께 언급하였고, 두 섬을 조선 땅으로 정한 관백의 서계를 받았음도 진술하였다. 울릉도와 우산도의 영유권

51 『竹嶋紀事』.

52 『숙종실록』 22년(1696) 9월 25일. 안용복이 조선에서 ‘자산도’로 언급한 것은 모두 『숙종실록』의 이 기사에 연유한다. 그러므로 『숙종실록』에 ‘자산도(子山島)’로 표기된 것은 ‘우산도(于山島)’의 오기이다.

을 일본 측에 주장했음을 조선 대신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1696년에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추격하면서 “마쓰시마는 바로 자산도이다. 너희들은 자산도도 우리 땅이란 말을 듣지 못했느냐?”라며 꾸짖었다는 내용이 『숙종실록』에 보인다. 이 기사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안용복의 진술로 알 수 있는 점은 그가 분명히 자산도(우산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안용복은 우산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취조 때마다 우산도를 언급했지만, 국왕이나 대신들은 우산도를 주목하지 않았다. 문헌에 늘 두 섬이 함께 언급되고 있었으나, 남구만이나 다른 대신들이 우산도를 언급한 기록은 보기 힘들다. ‘울릉도 쟁계’에서 우산도는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신들이 우산도를 언급한 기록을 보기 힘들다고 해서, 당시 남구만을 비롯한 대신들이 우산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이 ‘우산도’를 명기한 『동국여지승람』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여러 정황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박세당의 ‘우산도’ 인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박세당이 『울릉도』에서 기술한 울릉도·우산도 관계는 이런 정황과 남구만과의 친분 등을 고려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531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문구를 150여 년 후에 간행된 문헌을 해석하는 데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150년 넘게 전개된 역사적 변화 및 인식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이다.

IV. 맺음말

『울릉도 사적』은 1694년 장한상 보고서의 초안 혹은 일부를 후손이 옮겨 쓴 것이다. 그러므로 이본을 새로 발굴하고 그 필사 연도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울릉도 사적』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헌이 『숙종실록』의 장한상 수토 사실을 뒷받침하고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다는 점이다. 『울릉도 사적』 이본의 발굴로 장한상 집안에 여러 형태의 『울릉도 사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도 새로 밝혀졌다. 이는 그만큼 후손들이 장한상의 행적

을 끊임없이 현창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울릉도 사적』은 울릉도에서의 행적에 한정되어 있고, 돌아온 뒤의 행적이나 군관의 사전 답사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 점은 『울릉도 사적』을 필사한 세 종류의 이본이 모두 같다. 『울릉도 사적』은 “갑술년 9월 모일, 강원도 삼척영장 장한상은 치료로, 지난 9월 19일 사시쯤 삼척부의 남면 장오리진 대풍소에서 배를 출발시킨 연유를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로 시작해서 “이상과 같이 연유를 치료하는 장계를 올립니다”로 끝맺는 내용을 신고 있다. 이에 비해 박세당의 『울릉도』는 두 개의 보고서를 신고 있다. 하나는 “강원도 삼척진 영장은 치료합니다”로 시작해서 “갑술년 9월 2일 영장 장한상이 비국(備局)에 치료합니다”로 끝맺는 수도 전의 보고서다. 이는 군관의 사전 답사 및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해 대기 중인 상황을 보고한 것이다. 또 하나의 보고서는 “강원도 삼척진 우영장은 다음과 같이 치료합니다”로 시작해서 “연유를 아울러 치료합니다”로 끝맺은 보고서이다. 이는 장한상의 수도 행적 및 10월 6일 삼척으로 돌아온 뒤의 상황을 보고한 보고서이므로 최종 보고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울릉도 사적』이 장한상의 보고서 초안⁵³ 내지 일부를 후손이 필사한 것이라면, 박세당의 『울릉도』는 비변사에 제출된 장한상의 최종 보고서를 구하여 다시 필사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박세당은 울릉도에 가본 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대의 자료와 전문(傳聞), 조정에서의 논의, 각종 장계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 그리고 남구만에게서 얻은 정보에 의존해서 글을 지었다. 그런 만큼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에 대한 인식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당시는 장한상의 보고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53 이것이 최종 보고서가 아님은 10월 3일 삼척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 및 이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이원택 박사는 『울릉도 사적』이 감영에서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2018, 앞의 글, 21쪽, 각주 17)이라고 했지만, 필자는 비변사에 보고한 장계는 아닐 것으로 본다. 이전에 필자는 “『울릉도 사적』이 치료 형태인 것으로 보아 비변사에 보냈다는 보고서도 『울릉도 사적』과 동일한 내용일 것으로 보인다”(2013, 『우리 사료 속의 울릉도와 독도』, 68쪽)고 했지만, 이번에 다시 검토해 보니 치료 형태임은 맞지만 비변사에 보낸 최종 장계와 동일한 내용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신들이 장한상의 수토를 의심할 정도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정보가 만연해 있던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박세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물론이고 장한상의 보고서도 있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침삭을 가했다.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구절을 일부 누락시키거나 침삭했는데, 삭제한 것은 “一說于山鬱陵本一島”와 “其地遂空”이고 첨가한 것은 “登高望之”였다. 그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원래 한 섬이다”라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일설을 배척하고, 우산도가 울릉도에서 일정 조건 하에 보이는 섬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박세당 글의 가장 큰 차이이다. 박세당의 ‘이도(二島)’ 인식은 이후 이맹휴와 신경준의 시대에 이르러 더욱 공고해졌다.

이원택 박사는 『와유록』에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계승한 이산해의 「울릉도설」이 실려 있음을 들어, 박세당의 글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산해(1539~1609)와 박세당(1629~1703)은 동시대 인물이 아닐 뿐더러 글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글을 굳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박세당 시대에는 이산해 시대에 비해 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박세당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1도’ 설을 부정하고 ‘2도’ 설을 전개한 자라는 점에서 이산해의 인식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이원택 박사는 박세당의 글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과 다름없다고 폄하하고 반면에 장한상의 글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장한상(1656~1724)은 박세당(1629~1703)과 동시대 인물이다. 장한상은 『동국여지승람』을 휴대하고 울릉도를 수토했지만 ‘우산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하였다. 그는 “(울릉도)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라고 했지만 ‘우산도’를 거론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박세당은 “두 섬이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라고 하여 동해에 두 섬이 있고 그중 하나가 우산도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을 넘어선 자는 누구인가?

한문 사료를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주어가 없거나 화자(話者)의 시점이 섞여 있는 등 불분명하게 기술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장한상이나 박세당의 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해석에 매달리기보다 문맥 파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박세당의 글을 해석할 때 그의 학문적 배경을 이해한 뒤에 문맥을 함께 파악한다면 그가 말한 ‘우산도’가 어디인지는 분명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喬桐水使公輓祭錄』(의성조문국박물관)
『節度公兩世碑銘』(의성조문국박물관)
『節度公兩世實錄』(의성조문국박물관)
『속중실록』
『盧尙樞日記』(『한국사료총서』 제49집)
『西溪集』(박세당, 『한국문집총간』 134)
『新增東國輿地勝覽』
『鬱陵島』(박세당, 필사본)
『臥遊錄』
『燃藜室記述』 제24권 「인조조 고사본말」
『竹嶋紀事』(1698년 4월 1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유미림, 2007, 『「울릉도」와 「울릉도 사적」 역주 및 관련 기록의 비교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_____,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유미림 번역 및 해제, 2016, 『鳥誌: 울릉도史』, 울릉문화원.
이원택, 2018,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독도연구(獨島研究)』.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와 『울릉도』의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변석(辯析)

유미림

『울릉도 사적』을 둘러싼 논란은 필사 연대를 둘러싼 것이고, 『울릉도』를 둘러싼 논란은 ‘우산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다. 『울릉도 사적』은 기존에 신광박 필사본만 알려져 있었지만, 이 외에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음이 새로 밝혀졌다. 신광박 필사본이 『절도공 양세 비명』에 실려 있으므로 신광박이 필사했다고 하는 임인년을 1722년으로 추정할 필자의 설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신광박이 필사한 해가 1782년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울릉도 사적』의 필사 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절도공 양세 비명』에는 『울릉도 사적』 외에도 『양대 비명』과 『사제문』이 실려 있다. 『울릉도 사적』에는 『양대 비명』과 『사제문』에 없는 열두 글자가 더 있으므로, 세 가지 문서가 같은 해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울릉도 사적』을 필사한 해와 『절도공 양세 비명』을 편집한 해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박세당이 기술한 울릉도와 우산도 인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인식과 다름이 없으므로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박세당

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一說于山鬱陵本一島”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그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1도’설을 부정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보인다’고 한 내용과 박세당이 (우산도가) ‘보인다’고 한 내용의 차이를 밝혀, 박세당이 ‘보인다’고 한 것의 의미가 울릉도에 서 우산도가 보인다는 것을 의미함을 논증하였다.

주제어: 『울릉도 사적(蔚陵島事蹟)』, 『울릉도(鬱陵島)』, 『절도공 양세 비명(節度公兩世碑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장한상, 박세당

ABSTRACT

An Explanatory Study of the Controversy Over the Copy-written Year of *Ulleungdo sajeok* and Usando in *Ulleungdo*

Yoo Mirim

The controversy regarding *Ulleungdo sajeok* (Record of Ulleungdo Mission, 『蔚陵島事蹟』) is about the transcribed year, and the contention over *Ulleungdo* (Ulleungdo) is about its interpretation. The *Ulleungdo sajeok* was once known to have Shin Kwang-bak's manuscripts only, but it is now clear that it includes two more things in addition to Shin Kwang-bak's manuscripts. Because Shin Kwang-bak's manuscript was written in *The Epitaph of the Two Generals* (『節度公兩世碑銘』), it turns out that the existing theory of Shin Kwang-bak's copy of 1722 was incorrect. But even if 1782 was proven to be the year that Shin Kwang-bak wrote *Ulleungdo sajeok*, it is rash to jump into a conclusion that *Ulleungdo sajeok* was copied in 1782. *The Epitaph of the Two Generals* contains *Epitaph and Funeral Poetry* in addition to *Ulleungdo sajeok*. However, there are 12 letters in the Record of

Ulleungdo Mission which were not in the *Epitaph and Funeral Poetry*, thus it is hard to say that the three documents were written in the same year.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year of transcribing *Ulleungdo sajeok* and the year of editing *The Epitaph of the Two Generals* may differ.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that Park Se-dang's writings of Ulleungdo and Usando are the same as those of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Revised and augmented edition of the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and therefore Usando cannot be interpreted as Dokdo. Park Se-dang intentionally deleted what he wrote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Usan and Ulleung are one single island." This means that Park Se-dang denied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s theory. I have proved the difference of the meaning of the word "visible" in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and what Park Se-dang said in *Ulleungdo*.

Park Se-dang used the word "visible" to describe what humans can see with their eyes, meaning that Usando could be seen from Ulleungdo.

Keywords: *Ulleungdo sajeok* (Record of Ulleungdo Mission, 『蔚陵島事蹟』), *Ulleungdo* (『鬱陵島』), *Epitaph for the two generals, father and son* (『節度公兩世碑銘』),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Revised and augmented edition of the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新增東國輿地勝覽』), Jang Han-sang, Park Se-dang